



만병통치약은 있을 수 없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 현 술

만병통치약(萬病通治藥)은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상의 약이나 처방법을 의미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딸, 파나케이아(Panakeia)는 ‘모두 치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병통치약은 파나케이아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파나세아(panacea)라고 부른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1550년대 중세 유럽 최고의 명약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무미야(Mumia)를 방영하였다. 중세 유럽에서는 무미야를 만병통치약으로 믿으며, 감기 및 상처 소독과 각종 질병에 사용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구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미야는 미라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고대 이집트에선 내장을 제거한 뒤



붕대로 시신을 단단히 감아 미라를 만들었다. 붕대는 여러 가지 약품 처리가 된 것으로 주요 성분은 몰약이었다. 몰약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생하는 감람과 식물의 수피에 상처를 내어 채취한 천연 고무수지로 오래전부터 방부제로 사용되었다. 일찌감치 몰약 효능을 알았던 이집트인들은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 미라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다. 이에 유럽에선 몰약이 잔뜩 스며든 붕대는 물론이고 미라를 약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것이다. 미라를 약으로 사용한 기록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발견된다. 그리스 약학자 디오스코리데스는 미라를 치료약으로 사용했다고 기술하였다. 12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미라 가루를 다양한 질병에 사용했다. 이후 미라로 만든 무미야 인기가 치솟았다.

사람들이 미라를 약으로 썼던 이유는 몰약 그 자체보다 미라가 지닌 영혼 불멸 이미지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몰약보다 미라로 만든 무미야에 집착했다. 해마다 수백 톤에 달하는 이집트 미라가 유럽으로 수입됐지만,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미라를 유통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생겼다. 미라는 항상 부족하였고 전문 중개인들은 미라 공급을 위해 이집트에 도굴단을 보내 밀매까지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집트 근처 몰약나무와 미라 풍습이 있는 아프리카 인근 테네리페 섬까지 찾아갔다. 현지인들은 신성한 곳이라고 말렸지만, 도굴꾼들은 개의치 않았다. 동굴에는 엄청난 미라가 있었다. 도굴꾼들은 16세기 미라가 있는 동굴을 발굴하고 현지인을 매수, 협박해 수만 개의 미라들을 유럽으로 보내 가루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가 부족해지자 중개인들은 시체를 구해 직접 미라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부랑자나 죄인의 시신, 병에 걸려 죽은 시신을 미라인 것 같이 가짜 무미야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가짜 무미야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 또한 뒤따랐다. 1564년 프랑스 명의로 불렸던 의사 라퐁텐은 무미야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알렸다. 하지만 무미야 인기는 시들지 않았다. 지금까지 무미야 성분과 효능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무미야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의 최고 약으로 사랑 받았다고 전해진다. 현재도 무미야의 주성분인 몰약, 치약, 건강식품 등 몰약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기원전부터 비소는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비소약제는 삼산화비소가 포함된 파울러물약(Fowler's solution, 1% potassium arsenite, $KAsO_2$)이었다. 간질, 요통부터 피부병, 매독까지 모든 병에 처방된 만병통치약으로 19세기 빅토리아시대 대부분 영국 가정의 상비약이었다.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였을까? 파울러물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건선, 만성 습진 및 각화과다증(hyperkeratosis)과 피부암이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파울 에를리히가 매독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화학요법제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1910년 606번 새로 합성한 비소화합물인 아르스펜아민이 매독균의 사멸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후에 살바르산



으로 명명하였다. 사람에게 해가 없이 선택적으로 병원체만 죽일 수 있는 최초의 화학요법제가 개발된 것인데 유기 비소화합물이었으니 비소가 약재로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소는 암 등의 질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허가되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시계공장에서 라듐에 의하여 벌어진 의문의 사망사건이 다루었다. 야광시계를 만들면서 야광 원인인 라듐으로 팔이 저리고 살이 빠지며 혈액이 안 좋아지는 등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1924년 사망한 시계공장 여공들도 라듐물감을 칠한 시계를 만들다 사망한 것이다. 정교한 작업을 위해 라듐물감을 바른 붓을 입으로 뽀족하게 만들었는데 이 작업 속에서 라듐에 피폭됐다. 또 손톱에 라듐을 바르기도 하고 온몸에 라듐을 칠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1932년 미국 뉴욕에서 백만장자 사업가 에번이 자택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 전부터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고 턱이 썩고 입안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등 시계공장 여공들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 그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몸을 챙겼지만, 갑자기 몸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얼마 후 미국의 병리학자 해리슨 마틀린드는 사망 원인을 강장제 라디소어(Radithor)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디소어가 라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듐은 고위험 방사성 물질로 인체에 라듐이 축적되면 빈혈과 출혈 등 위험에 처하게 된다. 라듐이 축적되며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당시 라듐은 신비의 물질로 불리며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1898년 퀴리 부부에 의해 발견된 라듐은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적의 물질로 불렸다. 라듐 생수부터 라듐 화장품, 내복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라듐이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 것이다.

1918~1928년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베일리 라듐연구소는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보장한다며 '라디소어: 인증된 방사성 물'이라는 제품을 출시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 증류수에 라듐 226과 라듐 228을 1 마이크로 큐리씩 함유하여 간장제로 라디소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였다. 아름다운 피부, 끝없는 활력, 영원한 젊음, 각종 광고들은 라듐을 '빛나는 건강'이라고 외쳐댔다. 라듐 섭취는 햇살을 마시는 것에 버금가는 건강관리 비법이었다. 사망 전 1928년 에번은 주치의의를 통해 라디소어를 알게 됐다. 라디소어를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마셨다. 1932년 사망 당시까지 그가 마신 라디소어는 1,400병에 달했다.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장기는 피폭돼 있었으며 두개골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라듐을 마신 후 라듐 중독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라듐이 방사성 붕괴를 되풀이하는 중에 생겨난 기체성의 방사성 물질로 비활성기체의 일종인 새로운 원소, 이를 라돈이라고 명명하였다. 라돈도 방사선 물질이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돈 탕에서 라돈이 나온다면 피폭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떠돌이 상인인 박물장수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약으로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약장수들이 원숭이나 차력사 등을 이용하여 불거리를 제공하며,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았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조악한 품질이지만 구경하는 재미는 있었다. 만병통치약은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 물건을 팔려는 상술이 깔려 있다. 의학·약학적인 관점에서 만병통치약은 존재할 수 없다. 사람마다 몸 상태나 체질 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 증상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질병(예: 고혈압-저혈압, 변비-설사)도 많으며, 약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이 모든 질병에 맞는 효과를 내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은 만들 수 없다. 앞으로 만병통치약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양한 건강식품이 출시되고 건강에 좋다는 많은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다. 특히, 비타민이나 오메가3와 같이 항산화 작용을 돕는 영양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합성 비타민을 먹어도 질병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서 오히려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 천연 비타민도 연구 결과는 없지만, 그 효과나 부작용은 합성 비타민과 마찬가지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병원 연구팀이 2000년대 초반 합성 비타민 복용과 질병 예방 효과를 다룬 세계적인 논문 68건(조사 대상 인원 23만여 명)을 분석한 비타민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비타민A, 비타민E, 베타카로틴 등 합성 비타민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에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세 종류의 비타민을 모두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도가 5% 높았고, 비타민A만 먹은 경우에는 16%, 베타카로틴은 7%, 비타민E는 4%가 높았다고 한다. 사망 위험도 수치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비타민이 이로울 줄만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와 이 결과는 '코펜하겐 쇼크'라고 불리게 되었다. 비타민C는 사망 위험도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았지만 감기 등을 예방한다는 의학적인 증거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미국 의학한림원은 비타민C의 과대 복용이 이롭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하루 1g 이상의 비타민C 과대 복용은 설사나 복통 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드물지 않게 신장 결석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다.

국내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연구팀이 1985년부터 2007년 사이 세계적인 논문집에 발표된 논



문 31건을 분석하였더니 비타민 등 항산화제가 암 예방에 효과가 없으면서 오히려 방광암 발생 가능성이 1.5배가량 높았다고 발표하였다.

미국국립암연구소가 남성 29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 관찰해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지닌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 있는 합성 비타민을 일주일에 7개 이상 먹으면, 비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률이 30%나 높아졌다고 발표하였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합성 베타카로틴을 꾸준히 먹으면 오히려 폐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 성인에서 비타민D 이외 부족한 비타민은 없다고 한다. 비타민D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먹어서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비타민이나 항산화제를 먹거나 또는 과다하게 먹으면 해로울 수 있다. 부족하지도 않은데 더 먹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많이 먹어도 모두에게 이로운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없다. 현재 이롭다는 약물도 미래엔 해로운 약물로 판정날 수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다양한 식품을 먹고 다양한 색깔의 자연식품을 채취 후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다. 질병이 생기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단명과 그 원인을 파악한 후 효과가 입증된 약물을 적당량 처방받아 치료하여야 할 것이다. 약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양중,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 책읽는수요일, 2013.
2. 정원식 옮김, POISON 독의 세계사, 도서출판 세경, 2011.
3.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제작팀, 서프라이즈-사건편, 무미야, 중세 최고의 명약, 악마의 유혹, MBC C&I, 74-77, 2016.
4.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673회 의문의 죽음, 2015년 7월 26일 방영
5. Mullner R, Deadly glow - The radium dial worker tragedy, APHA, 1999.